

구강저암의 임상적 교찰

원자력병원 이비인후과

이국행* · 심윤상 · 오경균 · 이용식

저자들은 1985년 1월부터 1992년 12월까지 원자력병원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병리 조직학적 확진을 받은 100명의 환자를 후향적으로 조사하여, 그 임상상과 병기별 분류, 치료에 따른 결과와 생존율에 대해 보고하고자 한다.

연령별로는 50대, 60대의 순이었으며, 남녀비는 4.6:1로 남자에서 많았다. 흡연자가 95명이었고, 하루에 필터담배 1갑이상을 흡연하는 경우가 73명이었다. 음주의 경우 하루에 2홉들이 소주 1병이상을 섭취하는 음주자가 51명이었다.

대부분의 경우인 95례에서 편평세포암종이었고, 그 이외에 선양낭포암종, 점액표피양암종등이 있었다. 병기별로는 4기가 62례로 가장 많았고, 림프절 전이의 경우 71례에서 병리 조직학적으로 확진되었다. 2례에서 원격전이가 있었고, 1례에서 다발암이 확인되었다.

치료방법에 따른 5년 생존율은 주로 초기 암종의 경우 외과 단독요법만을 시행하였고, 71.4%의 좋은 결과를 얻었다. 항암약물요법에 상관없이 방사선조사를 시행한 경우는 대다수가 진행성 암종이었고, 전례에서 사망하였다. 방사선 외과 복합요법의 경우, 5년 생존율은 32.4%이었다.

A Clinical Study on Floor of Mouth Cancer

Guk Haeng Lee, M.D., Yoon Sang Shim, M.D.,
Kyung Kyoon Oh, M.D., Yong Sik Lee, M.D.*Department of Otolaryngology-Head and Neck Surgery
Korea Cancer Center Hospital*

We analyzed retrospectively 100 cases of floor of mouth cancer, treated at Korea Cancer Center Hospital from Jan. 1985 to Dec. 1992.

The most prevalent age group were 6th, 7th decades, the sex ratio was M:F=4.6:1. 95 patients were smoker, 73 patients smoked more than 1 pack per day. 51 patients were heavy drinker (So-ju more than 1 B/day).

Histopathologically, the squamous cell carcinoma (95 cases) was most common, followed by the adenoid cystic carcinoma (4 cases), mucoepidermoid carcinoma (1 case). The most common clinical staging was stage IV, and lymph node metastasis were 71 cases, histopathologically. Distant metastasis were 2 cases, multiple primary cancer was 1 case.

5 years survival rates according to treatment modality were 71.4% in operation only group that were almostly in early stage, 0% in radiation therapy group that were almostly in advanced stage, 32.5% in combination therapy with operation and radiation therapy.